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2월 31일(금)  
--(윤력 11월 28일)--  
Пятница  
31 декабря 2021г.  
№ 50 (1196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앞 광장의 새해맞이 울카와 얼음 조각상.

(이예식 기자 촬영)

##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이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는 사할린동포 특별법 시행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뒷받침해주신 분들과,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광고주로 나선 전용식 <라직스> 치과병원 원장, <사흐콤>회사 이용님 대표, <폴리그란드>회사 서 예브게니 대표이사에게 큰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신문기사를 한국 네이버 카페에 올리시는 정성훈 피디님, 러시아 아리랑.루 사이트 운영자 신 드미트리 대표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우리를 잊지 않는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회장 주훈춘)에 따뜻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민족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설윤창, 이정흥, 최형섭, 서재길, 기미양 님 등을 비롯한 한 해 동안 분지를 애독해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덕분에 사할린동포 신문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문과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택에 행운과 부유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고려신문사 대표 배 빅토리아

##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와 성탄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들은 기쁨과 행복, 기적에 대한 기대감과 선행 등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감정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나누며,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선사하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개혁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와 사할린주 모든 분들의 생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기록적인 양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새로운 항공노선을 개설했고, 의료적 도움을 쉽게 이용하도록 향상시켰으며, 주택-공공사업의 현대화와 신산업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할린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지역이 생활하기에 더욱 편안한 곳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며, 다가오는 해에는 성공과 성취, 밝고 행복한 순간들과 좋은 소식들로 풍성해지길 기원하고, 또한 강건하시며, 형통하시고 가장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새해와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친애하는 주민과 사할린동포 여러분!

새해와 성탄절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겨울 명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사랑받는 날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과 따뜻한 만남으로 온정을 나누고, 잊지 못할 순간들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친지들이 건강하며,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며, 생활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자기만의 소중한 꿈이 꼭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올해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있어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따른 특별법이 시행되어 사할린 동포 350여 명이 부모님들이 계신 대한민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고, 30년 이상을 기다렸던 특별 법안은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숙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75년 전에 일어났던 비극적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법안 개정이 시행되도록 공동으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202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많은 계획을 조정하게 했으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 보게 했고, 여러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평화와 번창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안정되며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것들로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 2022 신년사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인 2022년을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2년여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 온 코로나19를 마침내 제압하시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사할린은 날이 발전하여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사할린의 제1의 경제 파트너인데 앞으로도 수소 협력 등을 통해 통상 규모가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향후 한국과 사할린 간 경제 교류와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포 여러분이 기여하시거나 활동할 공간과 기회도 더욱 커지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북방경제 협력사업이 사할린을 한 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꽃 피워지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도 사할린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사할린의 문화를 특색 있고 격조 있게 만드는 데 한몫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포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주귀국 사업도 새해에 변함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포분들께 깊은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리며 부디 용기를 잃지마시기를 응원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건승하시고 행복하시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기동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 출장소 소장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오는 1월 2일(일)에 사할린주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국경선의 사할린주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할린 땅을 해방시킨 영웅들의 업적은 지역의 역사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업을 비롯해 주거 지역, 학교, 병원을 건설하십시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세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할린주에서는 7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사할린주는 보건, 건설, 교통, 환경보호 및 기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할린주의 주요 가치는 바로 특별히 사할린만의 특징을 가진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할린주는 모두의 집입니다. 우리는 사할린주를 사랑하며, 함께 돌보고, 이곳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사할린주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취와 강건함과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금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기쁘게 생각

저물어가는 해의 특징, 내년 계획에 대해 본사 배순신 기사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에게 여쭙어보았다.

**- 2021년은 소장님께 어떤 해이었습니까? 출장소 소장의 입장에서 보시는 저물어가는 해의 특징과 어려운 점, 좋은 점도 얘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동포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터널 끝이 보이는 듯하여 희망을 가지다가도 다시 실망하는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출장소 직원이 집단 감염되어 업무중단이 되는 사태는 막고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여 업무 처리 및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차질없이 완수코자 한 금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2022년에 출장소에서 계획하는 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내년에는 제4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10월경에 사할린에서 개최됩니다. 동 포럼 계기에 한국 영화주간을 개최하여 한국 문화를 사할린에 소개코자 합니다. 출장소는 그간 인력사정상 동포 및 영사민원 업무에 집중하여왔습니다만 한국 문화 소개 및 한류 붐 유지 등을 위해 공공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새해맞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가정적인 명절로 여기는데 소장님께서 새해맞이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 연말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모였습니다. 사할린의 자연과 백설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느낄 기회를 갖게 하고, 집에서 여유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 사할린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아직 코로나19 유행의 와중이라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2022년 맞이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영사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 새해 맞이·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한 세르게이, 바르드 (음유 시인):** 새해맞이는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손자들과 함께 해요. 새해 연휴 동안과 그 이후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도 많은 공연 일정이 잡혀 있고, 네벨스크 바다로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35명) 레스노에 휴양소에 가서 즐겁게 놀려고 합니다. 이를 동안 노래, 춤, 새해 놀이를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윤정옥, 교사:** 저는 이르쿠츠크에 있는 딸들을 찾아갈 계획이고요, 딸들과 함께 새해맞이를 할 겁니다. 올해 우리가 첫 외손녀를 봤거든요. 그래서 딸딸 가족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막내딸과 함께 이번 새해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여름에 이르쿠츠크를 찾아가지만 딸들과 함께 새해맞이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번 새해 연휴가 기대됩니다.

**이수미, 회사원:** 물론 저는 가족(아들과 남편)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밤 12시에 샴페인을 마시고 새해 선물을 나눌 거예요. 연휴 동안에는 여러 일정이 있어요. 시 공원도 꼭 가보려고요. 가족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울카(성탄 트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 사진도 찍고, 친척들과 만나 밥도 같이 먹고, 재미있는 게임도 할 계획이고, 친구들과 야외놀이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여러 친구

들과 만나 맛집 요리를 먹으며 많은 얘기도 하려고요.

**김 이리나, 대학생:** 저는 하바롭스크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땀에 하바롭스크의 모든 대학들이 지금 비대면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부모님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어요. 새해맞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거고, 물론 새해 연휴 동안에 친구들과 만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실 1월에 있는 기말시험 때문에 놀 시간은 별로 없어요.

**임훈남, 연금자:** 새해맞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번에 어머니와 딸과 함께 보내려고요. 작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수술 때문에 입원했었어요. 게다가 우리 딸 생일이 12월 31일이니 이번 새해맞이가 기대됐네요.

**이 마리나, 회사원:** 새해맞이는 물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요. 1월1일 아침에 차레도 지내야 하고요. 우리 딸은 모스크바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 새해 연휴에 남편이랑 사할린에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보내는 1주일 계획을 이미 다 짰지요. '찌하야'만의 얼음 폭포도 찾아가고, 얼음 낚시도 하고, 친척과 만나 보드 게임도 하고, 스키도 타고 할 겁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새해맞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의 여학생 러시아 작문대회에서 수상

돌린스크 제1호 학교의 8학년 학생인 아나스타시야 살라타의 작문이 전국 작문대회에서 100개 우수 작품에 들어갔다. 모스크바에서 작문대회 우승자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아나스타시야는 자신의 러시아어 선생인 올라 티모셴코와 함께 이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작문의 주제는 인간의 첫 우주 비행 60주년, 알렉산드르 넵스키 탄생 800주년과 러시아 작가와 문학작품 기념의 기념일에 따라 제시되었다.

사할린 지역 대표 학생은 <료쉬카 - 우주 비행사>라는 작품으로 작문대회에 출전했다. 연방 단계의 작문대회에는 지역 예선 단계의 최우수 작품들이 출전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 84개 행정 자치지역에서 총 355편의 작품들이 대회에 응모했다.

이 중 러시아 연방 63개 행정 자치지역에서 100명의 학생들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작문대회 공식 사이트(<http://vks.edu.ru>)에서와 작문대회 모음집으로 발표된다.

시상식과 겸하여 작문대회 결승 진출자들을 위해 모스크바시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새해맞이 도심을 구경하고, 붉은 광장과 국립 백화점, '자라지예'공원을 방문했다고 사할린주 교육품질평가 센터가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ая школьница вошла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Сочинение ученицы 8 класса школы №1 Долинска Анастасии Салата вошло в сотню лучших рабо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Анастасия участвовала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 учител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льгой Тимош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темы сочинений были продиктованы

памятными датами: 60-летие первого полета человека в космос, 800-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а также юбилеи росс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ступала в конкурсе с работой "Лешка — космонавт".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представили сочинения лучших авторов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 всего 355 работ из 84 субъектов РФ. Лучшими признаны работы 100 школьников из 63 субъектов РФ. Они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конкурсных сочинений 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нкурса. <http://vks.edu.ru>

Помимо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финалистов конкурс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экскурс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Москве. Школьники и их учителя погуляли по новогодней столице, посетили Красную площадь и ГУМ, побывали в парке "Зарядье",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 주민들, 올해 마지막 지적게임 '리스크'에 참가

청년주도 센터가 지나가는 해에 '리스크(이성, 직관, 속도, 그룹)' 그룹별 지적 게임을 개최했다. 12월24일(금)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박물관에서 지식을 겨루기 위해 도심 7개 교육기관의 팀들이 출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의 신화', '영웅과 악당' 등 3가지 질문의 범주에서 답해야 했다.

'리스크' 지적 게임은 마지막 문제의 범주에서 게임 점수가 극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이 답을 알고 있는 질문들을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문제의 점수를 2배 - 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게임의 우승은 128점을 획득한 '베이비 걸스(Baby girls)'팀이 차지했고, 2위는 121.5점을 획득한 '사할린스키에 톨레니(사할린의 물범)'팀이, 3위는 119점을 획득한 '그림, 이렇게 되네'팀이 차지했다.

경기 참가자들은 모두 참가 증서를 받았고, 우승자들에게는 게임 경기의 상징이 새겨진 기념패를 수여하고, 스포츠 상점의

5천 루블리 상당 상품권과 후원자들의 기념품을 수여했다. 이 행사는 '승리' 종합 기념박물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고 청년주도 센터가 전했다.

###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ыграли в РИСК последни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вел последние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ы РИСК (разум, интуиция, скорость, команда). 24 декабря на битву умов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ришли 7 команд различ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стояло ответить на три тематических блока вопросов: "Это создано природой", "Миф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Герои и злодеи".

Особенность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РИСК в том, что счёт игры может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ся на последнем блоке. Ребятам предлагало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ть вопросы, в ответах на которые они уверены, и увеличить "стоимость" заданий в 2 или 3 раза.

Победител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а команда Baby girls. Она набрала 128 балл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тюлени", которая набрала 121,5 балла. И третье место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няла команда "Ну получается так", набрав 119 баллов.

Все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за участие, а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или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с символикой игры, а также сертификатами в магазин спортивных товаров номиналом 5000 рублей и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ей от спонсо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 사할린의 어린 학생들 얼음 위에서 또다시 새해 특별 카드 만들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세웨어(북쪽)' 유·청소년관광 센터의 학생들이 사범 전 알레리의 지도에 따라 빙판으로 나가 특별한 방법으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새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새해를 맞아 사할린 주민들에게 빙판 위에 눈으로 신년 카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알레리 교사의 계획은 새해 축하 카드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8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 러시아의 우수학교로 인정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가 러시아의 우수 아동 예술학교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



2021년 '우수 아동 예술학교' 경연 결선에 전국 각지에서 59개 학교들이 참가해 결선을 치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가 최종 결승에 진출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러시아 연방 문화부의 주최로 전국 '우수 아동 예술학교'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경연대회는 2014년부터 러시아 예술학교의 시스템 발전과 보존 및 청소년의 재능 발굴, 아동 예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차 선발에서는 서류 및 자료를 경연 조직위원회가 심사했다. 사할린주 '지역 우수 예술학교' 부문 지역 단계에서도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가 우승을 거두었고, 극동연방관구의 2차 관구 단계에서는 각 지역 - 유대인 자치주, 캅차트카 변경, 사할린주,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사하 공화국 - 등에서 우승한 예술 학교들이 출전했다. 경연에 참가한 학교들은 예술교육 시스템 개발, 청소년의 재능 발굴 및 지원, 러시아의 문화유산 대중화,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화-계몽적 과제 해결, 학생들의 전문적, 창의적 역량 개발, 학습 동기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을 발표해야 했다.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는 한민족 예술학과 25주년 기념 '시간의 반영' 2021년 창작 기획을 발표했다. '에트노스' 학교는 2차 관구 단계에서도 우승하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2차 경연에서 우승한 59개 학교들이 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각 연방 관구에서 관구 단계의 우승자인 8개의 예술학교가 최종 결승에 진출했다.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 측에 따르면 최종 결승의 경연 과정은 아동 예술학교 개발 프로그램 발표라고 전했다.

전국 '우수 아동 예술학교' 경연에서 우승한 학교와 최종 결승에 진출한 학교들에 대한 시상식이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볼쇼이 극장 무대에서 이뤄져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의 교장 안나 위로호와에게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의 교수이자 총장인 알렉산드르 소콜로브가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

# 사할린에서 KBS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과 한민족상 전달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국이 개최한 <2021-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성인 부문 대상에 사할린동포인 박영자 씨의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약속>을 선정했고 주 코스타 학생은 <우리 가족 삶 이야기>이란 작품으로 영상 부문의 한민족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금) 박영자 씨와 주 코스타 학생이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해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국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사 배순신 기자와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을 통해 KBS 체험수기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수상 소감을 나누며 이들은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작년에 처음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홈스크중학교 10학년생인 주 코스타 학생은 '이번에 KBS가 개최하는 체험수기에 다시 참가하겠느냐'라는 제안에 바로 긍정적으로 응했다고 했다. 코스타는 "좋은 경험이거든요. 이번에 정말 엄청 많이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여러 번 가족사를 알아보고 글을 쓰고, 다시 고치고 했습니다. 제가 틀리면 할머니는 항상 고치라고 하시구요."라며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 과정을 밝혔다.

주 코스타는 이진선 선생이 강사로 하는 홈스크 한글학교에서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의 꿈은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익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상 전달식에 참석한 이진선 한국어 강사는 "코스타는 이번에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4급을 따냈는데, 사실 5급까지 몇 점만 모자랐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뒷받침하는 이진선 선생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사할린동포로서 최초로 대상을 받은 박영자 씨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단장으로 알려져 있다. 무용단은 문화기관, 사회복지 시설, 다양한 축제에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자원 봉사 활동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박영자



박영자 씨와 주코스타 학생.



주 코스타 학생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한 이병일 원장(왼쪽)과 배순신 기자(오른쪽).

씨는 "이런 상을 받은 것이 꿈 같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오늘 대상 상패도 받고 상금도 받고 하니, 기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들에 대한 저의 글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할린동포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 아픔은 우리 사할린 한인의 아픔입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 한인 모국 귀환'을 보는 러시아 기자의 눈... "그들은 사할린에 남겨놓은 게 너무 많다"

## "한국은 국가적으로 한인 귀환 정책 시행"...러시아TV 크세니아 콜치나 기자 취재

러시아 TV에서 사할린 한인 귀환을 소개하는 5분35초짜리 프로그램이 12월19일에 방영됐다. 취재는 크세니아 콜치나 기자가 맡았다.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 귀환을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읽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사할린 한인 귀환 정책을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편집자주>

사할린에서 한국 소고의 리듬은 거의 민속 음악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지도에서 인구수로 러시아인들 다음으로 한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소고와 북을 치는 동안 풍물패들은 거의 혼연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국과 동포들과의 혼연일체의 상태는 사할린 한인들의 모든 세대가 전 생애 동안 이루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들은 모국과 다시 결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10여 년간 재외동포들의 한국 귀환 및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민족을 불러 모으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국가적인 구상이다. 한인들의 모국 귀환 사업을 주제로 한 영화도 제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다. 러시아에게는 이것이 손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누구도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을 것이다.

올해 1월 한국은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 귀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온 한인 고령층 세대뿐 아니라 그들의 직계 후손, 즉 자녀들까지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수 있다.

영구 귀국 신청서 접수가 발표되자 1,063명이 영구 귀국을 신청했다. 자신들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이들은 사할린 한인의 역사의 뿌리인 모국으로 돌아간다.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고문희 총영사 대리는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시킨 한인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국적 회복 절차, 즉 본국 귀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세기 초반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당시 남사할린은 일본 가라후토 현이었다. 사할린 섬에는 석탄채굴, 삼림벌채, 철도 건설이 필요했다. 이러한 혹독한 노동을 위해 일제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일제는 사할린에 최소한 1만6천명의 한인들을 보냈다.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일본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명했을 때 사할린 한인들의 모든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사할린 코르사코프 해안 항구에 한인들이 모였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모두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갈 배가 수평선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모국으로

귀환시키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 언덕의 이름은 '눈물의 동산' 또는 '슬픔의 동산'이라고 불렸다.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을 기념하는 기념상이 이곳에 세워졌다. 두 개의 동상은 헤어진 한인 가족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향해 가고 있지만 결코 만나지 못한다. 강제 이주당한 한인들은 반세기 동안 가족과 친지를 보지 못하고 고국에 가지 못했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식 이름, 일본식 이름, 러시아식 이름이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서류상의 착오로 이들 중 일부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되었다.

사할린 주립 박물관,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는 "나의 어머니와 이모도 현재까지 러시아 국적도 소련 국적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출생 증명서가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이모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로 착오가 생겼다. 당시 공무원들은 이런 착오를 자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1991년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서울, 대구를 연결했던 원격 화상회의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헤어진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할린 한인 귀환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기초가 되었다. 1992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사할린 한인 귀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시 러시아에 있는 자기 가족을 놓아두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당시 이들은 자녀를 동반하고 귀국할 수 없었다.

소 엘레나는 2000년 어머니를 서울에 떠나 보내며 울었다. 이제는 그녀의 딸이 그녀를 보내며 울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엘레나는 90세된 노모를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한국인으로 돌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장기 거주한 세월로 인해 사할린 한인들의 정신 세계는 많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두 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엘레나는 "나는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 나는 절대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나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러시아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사할린 섬에서 러시아인들과 한인들의 문화는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어 이제는 서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별은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사할린 한인들만이 갖게 된 민족적 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사할린에 남겨놓은 것이 너무나 많다.

(출처: 월드코리아)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Дорогие земля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имите мои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Эти зимние праздники – самые главные и самые любимые. Они согреты теплом встреч с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людьми, наполнены незабываемыми мгновениями.

У каждого свои ожидания. Но по большому счёту все мы хотим, чтобы близкие были здоровы, чтобы в доме царил согласие, дети радовали, жизнь была мирной, а мечты, даже самые сокровенные, обязательно сбывались.

Уходящий год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 связан со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С 1 января 2021 году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которому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ыехали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почти 350 человек.

Правда Закон, на который мы возлагал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и ждали более 30 лет,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не отразил все наши чаяния.

И в Новом году нам предстоит вместе,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 закон внесли поправки, которые даду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вернуть страничку страшной трагедии, произошедшей более 75 лет назад.

Уходящий год был непростым. Вирус изменил наш привы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скорректировал многие планы, застав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ценности и во многом изменил нас. При этом дав понять,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 это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И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я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и вашим близки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чтоб в новом году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каждой семьи произошли перемены к лучшему.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сем вам успехов,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здоровь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пусть будут наполнены теплом и уютом ваши дома.

Желаю Вам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уверенности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С Новым годом, с новыми переменами, с новыми надеждам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 Пак Сун Ок**

## В РК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858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х числ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0,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Ранее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л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лет подряд.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ов, рост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роизошёл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рынка труда. В строительном секторе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7 тыс.,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 на 4.100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Число време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подёнщиков выросло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27 тыс.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 в мае 64,2%, что на 0,5% вы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о 54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21,9%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52,2% иностранцев зарабатывают порядка 2 млн вон (1.700 долларов), 21,9% – более 3 млн вон (2.500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рше 15 лет,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К более трёх месяцев,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мая 1 млн 330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 Наши проекты прошли под эгидой двух слов: милосердие и равнодушие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попросила подвести итоги уходящего года,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ть о грядущих планах президен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 Каким был для Вас 2021 год? В чем его особенность? Все ли планы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все ли удалось?**

– 2021 год был не простым годом.

1 января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эт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а с другой – нек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Закон, который принят спустя 75 л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не решил проблему, а породил новые, вновь уже третий раз разделили семьи.

Конечно, это вызвало некоторый негатив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й порой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нас. Нам бы сплотиться, а не искать виноватых. Ведь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требовалось более 50 лет. Но мы,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дальше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В этом году мы собирали подписи в поддержку поправок к спец. закону,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п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данных, которые мы получи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кетирования в 2015 году. И что бы не говорили, именно на основе наши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велась работа для принятия спец. закона. И сейчас уже идет разговор по изменению спец. закона, опять просят у нас данные. Чтобы конструктив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ужны конкретные цифры, сколько людей выехало на ПМЖ, сколько осталось, а что будет, если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не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а двойно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не надо, во-первых, проживать в Корею год, во-в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об этом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18 декабря 2021 г мы передали письмо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отором вновь обозначили, что к сожалению закон, принятый 29 апреля 2020 г. в полной мере не отражает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будут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которые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вернуть страничку страшной трагедии, произошедшей более 76 лет назад.

Спецзакон принят, реализацией занимался МИД Коре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мы тоже работали, у многих будущ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были трудности с различ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и когда Красный Крест Кореи обращался к нам за конкретной помощью, не помочь мы не могли. Был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Итог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ыехали 334 человека.

Мы второй год живем в условиях ограничений, вызва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Несмотря на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ограничения,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множество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д эгидой двух простых слов: милосердие и равнодушие.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ы продолж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тем самым хоть немного поддержать наш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ирус изменил наш привы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астав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многие планы.

Впервые мы не смогли широко отметить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корейцев – 76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о мы с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ым реалиям. Одними из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еденных в 2021 году –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который нам пришлось провести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более красочным и интересным.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мы стали офиц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веден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мы провели «Молодежный праздник Пенсе» в г. Холмск.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лагерь вместо традиционных 3 дней продлился до 7 дней и детей было больше, чем обычно.

К 15 летию ККЦ мы провели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Фестиваль тхэквондо,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янсе, Фестиваль ссирым,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работе РООС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азднования 15-ле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целом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дены, но порой одно и то ж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водить по несколько раз, чтобы не подвергать людей опасности. Например, мед.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ы проводили, чтобы количество не превышало 30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в копилке 4 гранта (РООСК – 1,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 2, Холмское отделение – 1).

Удалось приумножить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Приобрели светодиодный экран, актовый зал оснаст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тавок.

**– С кем вы сотрудничаете? Кого бы Вы хотели отметить из своих соратников?**



– Работают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РООСК – их 8 юрид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то больше, кто меньше.

Но я не могу не отмет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молодеж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фициально он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в январе.

Перечислю их работу: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лагерь,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Обоиналь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И во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ни всегда с нами.

Федерация ссирым. В этом году они провели два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фестивале Кимчи – одна из больших площадок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сирым, а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они провели в рамках 15-летия ККЦ – был проведен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это было не просто соревнование, некое шоу, тем самым привлекая этому виду спорта еще 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провели два фестиваля (На кубок РООСК и к 15-летию ККЦ).

Наши партнеры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а, в которо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156 человек,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му 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Хотя мы проводим их почти уже 5 лет,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ни разу не повторялась.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 работа по спец. закону, помощь по подготовке документов и соорганизаторы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й РООСКа.

Женсовет проводи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уга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День матери.

Районные отделения,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работают на места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говорить, что какое-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о РООСК –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сейчас – это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чти всех отдел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этому я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за работу.

Корейские партнеры КОФИ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фон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лагодаря им уже 3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 этом году в октябр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приезжали с инспекцией к нам, и когда они увидели, как мы проводим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дали нам очень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а когда увидели нашу оргтехнику, наш транспорт, пришли, мягко говоря, в ужас, поэтому КОФИН приобрел нам маленький автобус.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которым мы работаем с 1989 года.

КИН – организация, с которой сотрудничаем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ахалинцы знают о них хорошо, именно они ежегод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ются выпуском «Единственного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я».

Конечно, не могу не отметить помощь ПС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Макарова и Холмска.

**– Планы на будущий год?**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планах, то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у по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я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бработка данных, которые дадут нам конкретные цифры, сделать возможным изменить закон).

В 2022 году РООСК исполнится 30 лет. Иде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есть, но говорить о них пока рано.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чтобы у нас было будущее, а главное, чтобы они не забыли свои корни.

Хотим открыть центр досуг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мы уже начали ремонт. Я думаю, в конце марта центр заработает.

Конечн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коронавирус позволил нам провести тради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мы проводим ежегодно.

Сегодня мы говорим о привлечении интереса к нашей культуре.

Уже сегодня к нам прилетают с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ашей культурой, традиция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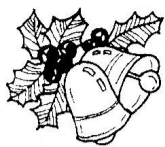
Например, 23 декабря мы встретили нескольк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для которых в наше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рганизо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ели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бята остались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Хотим сделать возможным в рамках событийного туризма привлекать турист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РООСКа.

**– Новый год – праздник семейный. Как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встретить этот Новый год?**

– Для меня семья всегда был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когда-то во многом из-за детей я не вернулась в профессию. И ни разу об этом не пожалела.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меня огорчает, что они далеко,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Москве. Раньше они всегда прилетали на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домой. Но и здесь коронавирус внес свои коррективы, мой младший сын – врач, работает в больнице им. Боткина и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е может прилететь к нам на Новый год.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шей семье прибавление. Старший сын женился, а невестка тож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медицине – фармацевт, у нее тоже нет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Поэтому мы с супругом летим к детям.

Желаю всем встретить весело Новый год,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вам!



#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 В РК разработаны ПЦР-тесты для обнаружения штамма Омикро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частные компании РК совместно разработали реагент для ПЦР-теста,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стро обнаружить вариан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Как сообщила 24 декабря начальник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Чон Ын Гён, реагент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срок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с нынешних трёх-пяти дней до трёх-четырёх часов. С 29 декабря препаратом обеспечены пункты тестиро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ачалось его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агент, который уже определяет Альфа-, Бета-, Гамма- и Дельта-варианты вируса, будет первым в мире, который сможет различать сразу пять его основных вариантов.

## Годовая зарпла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установлена в размере 240,6 млн вон

Годовая зарпла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 2022 год установлена в размере 240 млн 600 тыс. вон (202.815 долларов). Данный размер зарплаты предусмотрен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принятым 28 дека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им, зарплата госслужащих будет повышена на 1,4%. Годовой оклад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оставит в будущем году 186,5 млн вон (157 тыс. долларов), вице-премьеров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ям – 141 млн 100 тыс. вон (119 тыс. долларов). Годовая зарплата министров установлена в размере 137 млн 100 тыс. вон (115,5 тыс. долларов), а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уровня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 133 млн 200 тыс. вон (112 тыс.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и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президент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вернут 1,4% своей зарплаты, на которые она повышается, в знак разделения финансового бремени с людьми, страдающими от пандемии COVID-19. Следовательно, он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такую же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которую получали в 2021 году. Еж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величена на 11,1%.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зарплата сержанта сухопутных сил составит 676.100 вон в месяц.

## В 2021 году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29 языках 180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2021 год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литературных переводов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29 языках около 180 произвед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Как сообщили 22 декабря в институте,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ём работы, проделанный с момента его основания в 1996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были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12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или переводческих премий. Среди лауреатов – работа Юн Го Ын Disaster Tourist в переводе Лиззи Бюлер, получившая в июле премию Ассоциации криминальных писателей, а также сборник комиксов Moms Ma Ён Сина в переводе Джанет Хон, удостоенный премии Narguey.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институт планирует издать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около 2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берут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1 декабря, в 2020 году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взя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69.345 работающ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Это примерно в 2,3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10 лет назад, и на 3,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Женщины составляют 77,3% находящих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мужчин, но их доля оказалась в 19,6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Количество женщин,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ам, выросло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в 1,8 раза. По закону, любой гражданин страны, имеющий ребёнка младше восьми лет, имеет прав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отпуска,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зывает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Данная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борьбу со сверхнизким уровнем рожд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24,2% родителей, чьи дети родились в 2020 году, взяли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ними, что на 1,2%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 на 11,9% больше, чем 10 лет назад. Среди отцов, взявших такой отпуск, большинство, а именно 43,4%, относятся к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35 до 39 лет. Большинство матерей, 39,8%,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30 до 34 лет. 63,5% работников,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в 2020 году, работали в компаниях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персонала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прочно укоренилась в средних 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53,7% отцов, взявших такой отпуск, составили работник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реди матерей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46,6%, заняли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RKI)

## Год Синего Водяного Тигра

2022 год Синего Водяного Тигра принесет с собой значительные перемены для всех знаков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Поскольку сам покровитель года – активное животное, которое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ся в поисках добычи, то и всем знакам придется проявить активность – это главное, что говорит гороскоп на 2022 год.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огненных и воздушных знаков.

Кроме того, поскольку стихия воды во многом компенсирует привычную активность Тигра, этот год будет также посвящен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сканиям и эмоциональным изменениям. Стихия воды призывает максимально глубоко погрузиться в свои мысли и переживания, осмыслить пережитое ранее, а тигриная энергия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это с полной отдачей.

### Здоровье

Год Тигра обещ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улучшение здоровья тем, кто веде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Для всех, кто еще сомневается, стоит ли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начало года – отличный повод сделать решительный шаг.

Поскольку стихия воды отвечает за работу сердца и тонкого кишечника, в новом году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менно на эти органы. Есть шанс справиться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озникшими ранее.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в год Тигра придется людям, знающим о своих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ах, поскольку стихия воды сама по себе предполагает углубление в свои переживания и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опасно.

### Семья

В этом году есть шанс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детьми-подростками. Для тех, кто давно не может зачать ребенка,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появляется шанс, поскольку Тигр очень ценит свое потомств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ожилыми родителями, наоборот, нужно быть как можно осторожнее: общение может значительно ухудшиться, если не уделять ему достаточно внимания. В этот период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следует придумывать общие занятия и развлечения, вовлекать друг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в свою сферу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этом нельзя всё-таки забывать и о себе. Это хороший период для интровертов, чтобы остаться наедине с собой и своим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Не стоит, однако, чрезмерно забываться: Тигр не потерпит полной углубленности в себя и отстраненности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и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мешается. Притом так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может быть весьма неприятным для чрезмерно увлекшегося интроверта.

### Любовь

Год Тигра дает всем шанс на страстный яркий роман, который оставит от себя глубо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даже если не получит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овезёт в этот год также тем девушкам, которые хотят выйти замуж и родить ребёнка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Однако не стоит с головой кидаться в любые скоропал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иглядеться к ним повнимательнее, поскольку будущий избранник может обладать типичным тигриным характером: то есть

быть жадным и не слишком стремиться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местом главы семьи. Именно такие мужчины в год Тигра будут казаться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и яркими, но не стоит обманываться первым впечатлением.

### Карьера

Год Тигра 2022 также принесет с собой значительный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активным изобретательным людям. Благоприятен он будет также для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хорошо знакомых со своей областью.

Стихия воды располагает к большему развитию, предлагает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деталям, погрузиться в направление, с которым работаешь.

Этот год также может принести с собой резкие изменения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смен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ложно придется пассивн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так и не смогут подняться на следующий уровень, хотя год Тигр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м для этого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 Финансы

Тигр – не самое щедрое животное, поэтому за повышение финансового уровня придется бороться. Однако для тех, кому удастся совершить прорыв, успехи будут значительными, и денежный поток увеличится очень ощутимо.

Тигр не привет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ые траты, но при этом одобряет подарки внутри семьи и близким людям. Тем не менее,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гноз на 2022 год не обещает ни легкого карьерного взлета, ни быстрого улучшения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Активным и трудолюбив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скорее всего, удастся добиться своего, однако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прид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Говоря о том, каким будет год Тигра 2022, нужно помнить: сво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он предлагает только людям активным, готовым действовать во имя свое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Хорош этот год будет также для тех, кто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аморазвитию, анализу своег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у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Тяжело прид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консерваторам, людям, не привыкшим к переменам и не желающим их. Им будет трудно сохранить привыч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так как весь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потребует от них действия.

2022 год – это год перемен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жизни. Смена работы,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даже партнеров – всё в этот период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Год будет благоприятным для тех, кто давно хотел решиться на что-то новое и никак не мог этого сделать раньше. И, даже если этот год будет не слишком спокойным,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н оставит о себе массу интерес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Важно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уделять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своему внешнему виду, для Тигра это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сточник: <https://2022newyear.ru>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2022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월					3월 음력 1-2월				
월		3 12.1	10 8	17 15	24 22	31 29		7 7	14 14	21 21	28 28		7 5	14 12	21 19	28 26
화		4 2	11 9	18 16	25 23		1 1.1	8 8	15 15	22 22		1 1.29	8 6	15 13	22 20	29 27
수		5 3	12 10	19 17	26 24		2 2	9 9	16 16	23 23		2 30	9 7	16 14	23 21	30 28
목		6 4	13 11	20 18	27 25		3 3	10 10	17 17	24 24		3 2.1	10 8	17 15	24 22	31 29
금		7 5	14 12	21 19	28 26		4 4	11 11	18 18	25 25		4 2	11 9	18 16	25 23	
토	1 11.29	8 6	15 13	22 20	29 27		5 5	12 12	19 19	26 26		5 3	12 10	19 17	26 24	
일	2 30	9 7	16 14	23 21	30 28		6 6	13 13	20 20	27 27		6 4	13 11	20 18	27 25	
		4월 음력 3월					5월 음력 4-5월					6월 음력 5-6월				
월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30 5.1		6 8	13 15	20 22	27 29
화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31 2		7 9	14 16	21 23	28 30
수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1 5.3	8 10	15 17	22 24	29 6.1
목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2 4	9 11	16 18	23 25	30 2
금	1 3.1	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3 5	10 12	17 19	24 26	
토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4 6	11 13	18 20	25 27	
일	3 3	10 10	17 17	24 24		1 4.1	8 8	15 15	22 22	29 29		5 7	12 14	19 21	26 28	
		7월 음력 6-7월					8월 음력 7-8월					9월 음력 8-9월				
월		4 6	11 13	18 20	25 27		1 7.4	8 11	15 18	22 25	29 3		5 10	12 17	19 24	26 9.1
화		5 7	12 14	19 21	26 28		2 5	9 12	16 19	23 26	30 4		6 11	13 18	20 25	27 2
수		6 8	13 15	20 22	27 29		3 6	10 13	17 20	24 27	31 5		7 12	14 19	21 26	28 3
목		7 9	14 16	21 23	28 30		4 7	11 14	18 21	25 28		1 8.6	8 13	15 20	22 27	29 4
금	1 6.3	8 10	15 17	22 24	29 7.1		5 8	12 15	19 22	26 29		2 7	9 14	16 21	23 28	30 5
토	2 4	9 11	16 18	23 25	30 2		6 9	13 16	20 23	27 8.1		3 8	10 15	17 22	24 29	
일	3 5	10 12	17 19	24 26	31 3		7 10	14 17	21 24	28 2		4 9	11 16	18 23	25 30	
		10월 음력 9-10월					11월 음력 10-11월					12월 음력 11-12월				
월		3 8	10 15	17 22	24 29	31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4
화		4 9	11 16	18 23	25 10.1		1 10.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5
수		5 10	12 17	19 24	26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6
목		6 11	13 18	20 25	27 3		3 10	10 17	17 24	24 11.1		1 11.8	8 15	15 22	22 29	29 7
금		7 12	14 19	21 26	28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12.1	30 8
토	1 9.6	8 13	15 20	22 27	29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2	31 9
일	2 7	9 14	16 21	23 28	30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3	



# 임인년

음력설  
2.1  
한식  
4.6  
단오  
6.3  
초복  
7.16  
중복  
7.26  
말복  
8.15  
추석  
9.10  
성탄절  
12.25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한	한	춘	수	칩	분	명	우	하	만	종	지	서	서	추	서	로	분	로	강	동	설	설	지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4	19	5	21	5	20	5	21	6	21	7	23	7	23	8	23	8	23	8	23	7	22	7	22

# 2022 임인(壬寅)년 띠별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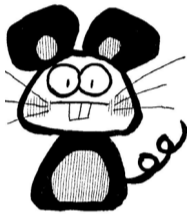


## 각 띠별 2022 임인(壬寅)년의 기운

띠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띠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십이신살	역마살	반안살	장성살	망신살	월살	년살	지살	천살	재살	겁살	화개살	육해살

### 子(쥐띠): 역마

1. 타의에 의한 환경 변화, 공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2. 새로운 사업에 관심, 이동 예상.
3. 무역, 항공, 해운, 언론, 통신, 이동이 많은 직업에 좋다.
4. 부서변동, 업무 변동, 직장 이동이 있다.
5.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주의, 빠른 적응력이 필요.
6. 먼 거리 출장, 또는 객지 근무의 기운.
7. 활동성 많아지니 건강에 유의.
8. 새로운 대인 관계 형성이 빈번.
9. 주도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상생이 중요.
10. 금전운은 활동이 많은 만큼 지출도 많다.



### 丑(소띠): 반안살

1. 안정적 기운, 왕성하고 강인한 힘으로 주도.
2. 금전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안정적 이익.
3. 업무 처리에서 리더십을 발휘, 능력 인정.
4. 기술, 예체능 부분에 큰 발전, 직장 승진의 운.
5. 일선에서 한발 물러난 기운, 주변과 협의, 상생 반드시 필요.
6. 대인 관계 원만, 양보하는 자세 필요.
7. 공식적인 문서들 운 좋다.(학위, 자격증, 특허, 면허, 집 문서)
8. 남녀 모두 결혼이 운 좋다.
9. 큰 것은 이룰 수 없지만 마음은 편안한 상태, 욕심을 버려라.
10.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살린 노하우로 승부하라.



### 寅(범띠): 장성살

1. 환경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누리는 해이다.
2. 주도적인 자세로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운.
3. 강인한 힘,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4. 호랑이의 강한 기운으로 이혼, 이별 수 있으니 주의.
5. 예체능,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해.
6. 중요한 임무 부여, 직위, 명예 상승.
7. 지나친 자존심으로 인한 대인 관계 충돌, 유연한 태도 필요.
8. 능력 이상으로 얻는 것이 있지만, 구설수도 있으니 주의.
9. 외형적 이미지는 상승, 재물적 이익은 하락. (폼생폼사로 인한 소비 지출 예상)
10. 워낙 강렬한 에너지 발산에 의한 만성피로, 건강 유의.



### 卯(토끼띠): 망신살

1.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무대 위로 올려져 주목받는 해.
2. 긍정적인 기운과 부정적인 기운이 함께 공존.
3. 긍정적 요인: 안정적 발전과 신분 상승.
4. 부정적 요인: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치부가 드러나는 해.
5. 주체가 아닌 타인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기운.
6. 시험 합격, 취업, 승진의 운은 좋다.
7. 예술인 작품 발표로 인해 세상의 주목받는다.
8. 고정 수입 외, 사례금, 포상금, 위로금, 성과금 같은 수입 운.
9. 재물운은 상승, 대인관계는 스트레스 예상.
10. 과욕으로 인해서 주변으로 부터 인심 잃지 않도록 주의.



### 辰(용띠): 월살

1. 추진력 상승.
2. 주변 환경에 의해 내가 드러나는 해.
3. 급격한 힘의 성취와 기운 폭등으로 인한 갈등 요소 발현.
4. 사업, 직장과 관련해서는 실적 부진. 현상 유지가 최선.
5. 승진, 취업 보다 휴직, 휴식의 의미가 강한 기운.
6. 힘든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운.
7. 인간 관계, 시기, 질투 예상 되니 유연함 필요.
8. 대인관계 폭이 좁아진다. (제한적 대인관계 형성)
9. 고정 수익은 어려움이 있으나, 상속, 증여, 보험, 보상금 있다.
10. 부부, 연인 관계에 있어 고집과 아집 내려놓기.



### 巳(뱀띠): 년살

1.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다.
2. 직장, 사업, 본인의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해.
3. 문화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 전문 분야 성공.
4. 대인관계 교류 폭 확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5. 이성에게 호감과 관심, 시선을 집중시키며 인기 상승.
6. 복잡한 애정사로 인한 갈등 발현.(이성 관계 요주의)
7. 재물은 많이 벌고 많이 나가는 해. 계획적인 소비 필요.
8. 남에게 보여주기 식, 사치성 소비 심리 상승.
9. 집중력↓ 공부나 학업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
10. 주거 변동(병원 출입), 직장 이동 빈번. 건강 체크 필수.



### 午(말띠): 지살

1.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꾸준히 갈고 닦은 것을 펼치는 해.
2. 주체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해.
3. 먼 거리 이동 빈번(해외 출장, 지방 근무, 파견 출장).
4. 승진, 인사이동, 전문 직종으로 전환, 취업 등에 좋은 운.
5. 직장 상사나 선배의 조력으로 자신의 능력 인정받는 해.
6.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해.
7. 다양한 대인 관계 확대, 교류가 많아진다.
8. 상속, 증여, 보상금, 뜻밖의 금전 운 있다.
9. 잦은 이동, 여행, 먼 거리에서 이성 운이 있다.
10. 새로운 출발, 성장의 기운으로 가득한 해이다.



### 未(양띠): 천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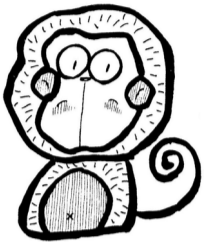
1. 활동에 제약,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해.

2. 사업 확장, 새로운 분야 도전, 투자는 미루는 것이 좋다.
3. 밥 뜯 들이는 시간에 비유, 현 위치에서 내실을 다지는 단계.
4. 재물운은 넉넉하지도 쪼들리지도 않은 상태.
5. 욕심을 버리고 기존의 자산 방어하는 전략 필요.
6. 횡재수(오래 안 팔리던 부동산 매매).
7. 연애 운: 노력과 공을 들이는 것에 비해 결과는 시원찮다.
8. 스스로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에 힘쓰는 것이 좋다.
9.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에 유의.
10. 어려운 고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열어가 수 있는 기회.



### 申(원숭이띠): 재살

1. 신체적 활동력은 다운, 정신적 활동력은 상승.
2.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좋은 운.
3.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 목시속이 상함).
4. 사업: 지출을 줄이고 규모 축소, 비용 최소화 전략 필요.
5. 직장인, 창의적 분야, 타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다.
6. 임기응변 상승, 어려운 사태 수습하는 데 도움 된다.
7. 시기와 질투, 험담으로 인한 구설수 예상. 자숙하면 좋다.
8. 자기 껍데에 넘어가는 운,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9. 재물운 불리, 부동산, 중요 서류 계약은 각별히 신중.
10. 대인관계 폭을 줄이고 자기 계발의 시간에 투자하라.



### 酉(닭띠): 겁살

1. 과거 청산, 새로운 도약, 반전의 힘 상승.
2. 오기와 집념, 불같은 투쟁심으로 목표 달성하는 해.
3. 하강과 상승의 교차점, 극단적인 경쟁 구도 조성.
4. 사업: 7개는 양보하고, 3개만 지키자는 전략 필요.
5. 금융, 세무, 전기, 전자, 통신, 사법 계통은 좋다.
6.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 부서 이동, 전출이 있을 수 있다.
7. 경쟁력이 있으므로 선출직, 명예직, 선거에는 좋다.
8. 먼 곳으로 이동, 유학, 장기 출장 등, 갑작스러운 단절 예상.
9. 갑작스런 이별, 갑작스런 결혼이 이뤄지는 해.
10.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 숨겨진 잠재력 활용하는 해.



### 戌(개띠): 화개살

1. 하락세의 끝, 안정적으로 보 호받는 기운.
2. 자신만의 기예(창의력, 학술, 예술)를 준비하는 해.
3. 자신의 장점을 찾고 궁리하는 단계.
4. 사업: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이 생긴다.
5. 새로운 사업, 큰 규모의 투자, 업무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6. 과거했던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
7. 문화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종교, 교육 쪽은 좋다.
8.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친구를 다시 만나는 등, 교류 활발.
9. 재물 축적이 이뤄지는 해.
10. 첫사랑과의 만남, 헤어진 연인, 별거 부부 재결합 기운.



### 亥(돼지띠): 육해살

1. 노력에 비해 결과가 늦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2. 자기 능력대로 처리하기 보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
3. 새로운 인맥 형성보다 현재 대인관계 원만하게 유지 중요.
4. 사업: 확장, 이직보다 현재 위치에서 현상 유지 필요.
5. 의료, 회계, 재무, 법무, 감정, 종교, 교육 분야 좋다.
6. 재물운 원활하지 않다.
7. 배우자, 연인에 대한 불만 고조, 결혼 운 좋지 않다.
8. 먼 거리 이동, 여행의 폭은 줄이는 것이 좋다.
9. 매사 지체와 장애가 많으니 허세와 자존심 내려놓아야 한다.
10. 부드러운 마음가짐과 주변과 협의의 상생 중요.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특별 신년카드 만들기 아이디어는 전 왈레리가 지난해 아무르주에서 발표된 경연에서 영감을 받아 시도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작품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호수 면적 200m x 50m의 눈 조각 카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호수의 얼음층이 얇은 관계로 대형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선정한 장소도 신속하게 변경하고, 선정한 구역 크기에 따라 계산한 스케치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따라 마지막 손질을 해야 했다.

"이 기획의 원래 목표는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한 팀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못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세밀한 작업은 불일치가 없는 통일성을 요구하거든요."라고 전 왈레리가 말했다.

올해는 다 자란 아이들만 아니라 2학년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들까지 참여해 지도교사를 흐뭇하게 했다. 작품은 지난해와 같이 30m x 40m의 크기로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작품을 완성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눈으로 완성된 작품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했다.

###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вновь создали на льду необычную новогоднюю открытку

Воспитанники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Севе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месте с тренером по ориентированию Валерием Теном вышли на лед и поздравили островитян необычным способом. Уже второй раз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островитяне создают снежную открытку на льду, а в планах преподавателя увеличивать объем новогоднего поздравления.

Идея создания необычной открытки появилась у Валерия Те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 вдохновил его конкурс, объявленный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т раз тренер хотел увеличить масштаб работы и разместить на озере открытку площадью 200 на 50 метров, однако планы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нарушились из-за тонкого льда. Выбранно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пришлось оперативно менять, а эскиз, рассчитанный по размерам выбранного участка, пришлось дорабатывать по факту.

—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цель проекта — сплотить детей. Результата бы не получилось, если бы не дружная команда, потому что кропотливая работа требует целостного состава и не терпит разногласий, — рассказывает Валерий Тен.

В этом году в создании необычного поздравл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е дет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ыли даже второклассники и их родители, что тоже порадовал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бота получилась размерами 30 на 40, и по времени ребята работали так же — три часа. Общий план получившегося снежного шедевра сахалинцы сняли с дрона.

### 2021년 한 해 외국인들의 러시아 시민권 취득 수 보고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약 66만 8천 명이 러시아 여권을 받고 러시아 연방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러

시아 연방 내무부 홍보실이 밝혔다.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결정 채택과 관련된 그 수는 66만 7천939명이다.' 라고 러시아 내무부 공식 홈페이지의 국내 이주민 상황의 주요 활동 지표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기간에 외국인 56만3천341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동포들이 러시아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데 협력함에 따라 7만 2천884명이 러시아 국가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колько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л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и в 2021 году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2021 года почти 668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получили российские паспорта и стал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ВД РФ.

«Число лиц,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667 939», — указано в сводке осно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которая размеще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ВД.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учили 563 342 иностранца. Кроме того,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72 884 человек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оказанию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Реклама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http://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3-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